

자연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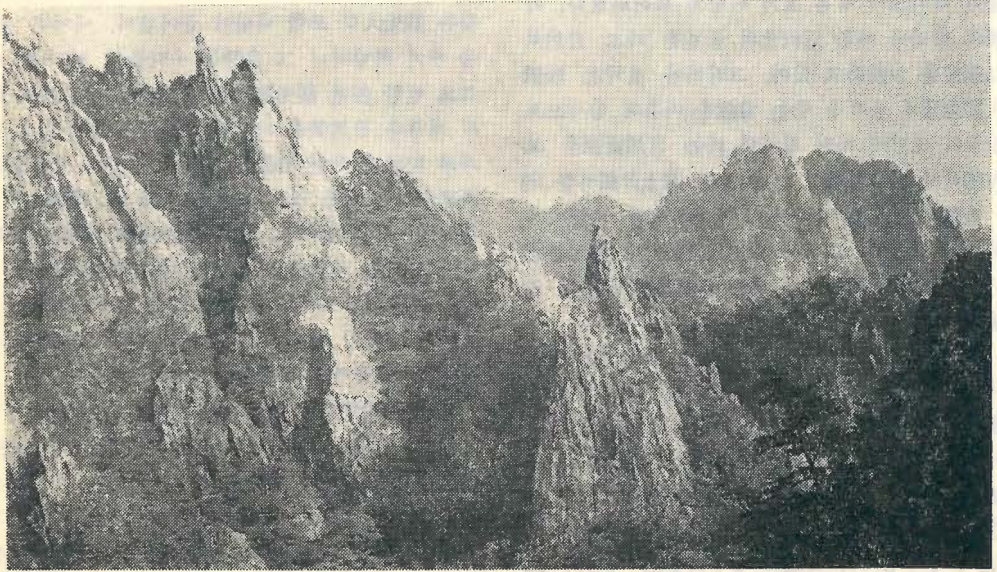
창간호

1968. 12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1968. 12. 30

韓國自然保存委員會 發行



창간사

이사장 姜永善

우리 나라는 예전부터 錦繡江山 이라고 일컫러 東洋에서도 가장 秀麗한 곳으로 전해왔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人口는 급격히 늘고 사람들은 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 얼마 안되는 동안에 名勝地로 유명한 山川까지도 벌거숭이가 될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國民의 리크리에이션은 커녕 教養을 위한 自然地域, 自然物, 혹은 遺跡조차도 保有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 밑에서 1965년 뜻있는 사람들이 주동이 되고, 關係學會의 후원을 얻어 우리 나라 自然과 自然資源을 保存하는 데 힘쓰고 연구하기 위한 團體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바로 韓國自然保存委員會(KCCN)이다.

本會는 1966년 6월 스위스, 루우선에서 열린 自然保存에 관한 國際機構(UN 산하)인 國際自然保存聯盟(IUCN)의 總會에서 이聯盟에 團體會員으로 加入되었으며, 그 目的하는 바를 완수하기 위하여 學術, 教育 및 事業의 3개 分科를 두기로 하였다. 우선 學術 分科에서는 1966년 미국 스미쑨니안연구소의 學者들과 우리나라 休戰線 隣接地域의 生態學의 研究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6月末까지 예정했던 豫備調査를 끝마치어 大體한 成果를 거둔 바 있다. 이 研究에는 우리나라 生物學者(地質學者 1명포함) 13명, 助教 21명이 동원되었으며 미국 학자 5명의 협조를 얻어 本會가 리드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원만한고도 협조적인 共同研究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다음 事業 分科에서는 작년봄 우리 나라의 公園法案이 國會에 上程되었을 때 國立公園에 있어 自然保護地區設定에 관한 條項을 삽입할 것을 강력히 建議하여 보다 훌륭한 公園法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本會의 가장 중요한 使命은 自然保存의 필요성을 널리 國民에 알려져 國民 스스로가 自然을 愛護하는 마음을 길러 주는 데 있다고 하겠는데, 그러기 위한 効果적인 方法의 하나는 自然保存에 관한 印刷物을 내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本會에서는 教育分科의 事業의 하나로 啓蒙紙인 「자연보존」을 年4회 發刊할것을 期하고 이번에 그 創刊號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自然保存에 관심이 있는 江湖의 여러분들은 本會의 事業에 적극 協力과 支援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는다. (서울大 文理大 教授)

<論說>

自然을 사랑하자

金昌煥

『仁旺山の 호랑이』란 말이 있드시 옛날에는 서울 仁旺山에 까지 우리나라 坊坊谷谷에 호랑이가 살았으나 지금은 南韓에서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解放前까지도 서울에서 흔히 朝夕으로 지붕위나 나무에 앉아 특유한 소리로 울던 까치도 이제는 보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科學의 발달에 따른 近代化의 물결을 타고 自然의 破壞는 그速度를 加重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은 機械化하는 人間生活에 潤澤을 주는 自然을 마음의 양식으로 하는 사람들의 갈망에 따라 황폐해 가는 自然資源을 보호하고 有効하게 活用하려고 하는 소위 國土計劃이란 理念下에서 自然의 보호를 진지하게 생각해야할 世態에까지 도달하고자 말한다. 그래서 國立公園法이나 狩獵禁止法 또는 天然記念物保護法이니 하는 自然保護에 관한 法規가 제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現況은 어떤가? 보잘것 없는 한 구루의 나무나 한 포기의 花草 또는 한 종류의 벌레가 學術上의 重要性때문에 天然記念物로 指定되어 보호받도록 퍼하면 다음 날부터 그들은 濫獲, 盜採의 苦難을 받게 되므로 보호는 커녕 도리어 天然記念物指定이 그들의 破壞와 滅亡을 助長하는 결과밖에 招來하지 않는 셈이 된다. 濟州島의 문주란이나 光陵의 장수하늘소 따위가 그 좋은 예다. 自然의 보호는 이런 珍貴한 生物의 보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地形, 地勢, 植生, 景觀 등 우리의 아름다운 錦繡江山의 보호까지를 포함한다.

우리는 우리의 祖上이 이룩한 훌륭한 文化財를 보존보호하며 그것을 자랑하듯, 우리의 아름다운 自然을 보호하여 이 錦繡江山을 世界에 자랑할 수 있게 子孫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國土 전체를 그대로 보존할 수는 없고, 더우기 近代化作業을 進척하면 할수록 그것은 어려우므로 極히 局限된 小地域만이라도 골라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 生涯에서 즐기고 또 後世에까지 넘겨주어야 한다. 文明이 高度로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必要性을 더 切感하여 一定한 지역을 國立公園 또는 自然保護區로 設定하여 그 지역이나마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國立이라면 國家가 보살핀다는 뜻이요 公園이라면 遊興地로 생각하기 쉬운 우리의 실정 탓인지 國立公園을 國家가 施設經營하는 유흥지로 오인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나, 原來 내손넌 파아크란 自然原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國民이 그 自然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그러니 國立公園과 自然保護區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많다.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등은 自然保護區이면서도 國立公園이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美國, 英國, 西獨 등에서는 國立公園과 自然保護區가 구별되어 있고 國立公

園도 정도의 차는 있으나 自然保護와 함께 리크리에이손을 그 主目的의 하나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昨今에 國立公園을 지정하고 있으나 自然保護區는 없고 國立公園도 그本來의 趣旨인 自然保護는 제쳐놓고 주로 리크리에이손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듯이 느껴짐은 슬픈 일이다.

科學의 進歩와 더불어 產業이 발달하고 國民所得이 向上하면 할수록 산이나 바다 또는 그밖의 觀光地를 찾는 人波가 늘어간다. 우리나라에서도 近年에 낚시人口와 狩獵人口가 바짝 늘었고 名山, 寺刹, 湖永 등의 名勝地를 찾는 觀光人口 또한 나날이 늘어간다. 때마른 삶에 潤澤을 주기 위함이니 그 自體는 우리들의 바라는 바이지만 그로 인한 俗된 觀光施設은 自然美를 더럽히고 觀光道路의 개통은 自然美를 파괴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낚시와 狩獵에 의한 資源의 枯渴은 눈앞에 닥아오고 있다. 漢拿山에 호텔을 짓고 도로를 만들 때 漢拿山의 自然美는 이미 잃을 것이요, 國際狩獵大會로 資源을 滅하는대신 얼마 안되는 外貨를 버는 것보다 狩獵을 금하여 평의 번식을 企圖하므로써 평이 濟州島에 우글거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될까! 또 얼마나 많은 外國旅行者를 招致할 수 있을까! 巨視眼의 設計가 아쉽다.

또 國土開發이란 美名아래 自然은 無慈悲하게 파괴되어 가고, 產業을 위한 資源의 開發은 自然의 모습을 크게 바꾼다. 잘 살기 위하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限定된 地域만이라도 原狀대로 保存한다고 못살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自然保護와 利用 增進은 相反된 현상이므로 그兩面의 調整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같은 公園에서도 地域別로 보호와 利用에 각각 重點을 달리하여 보는 慎重한 태도가 필요하다.

끝으로 自然을 즐기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저 한다. 어떤 사람은 大自然의 景觀에 마음이 끌리고 또 어떤이는 가련한 들새들의 울음에 愛着을 느낀다든가 또는 野草나 樹木의 自然姿態에 매력을 갖게 되듯이 사람마다 自然을 즐기는 點이 다르겠지만, 大自然을 滿喫하고자 서울의 郊外를 찾으면 靜寂해야 할 숲이나 湖畔에서 들새의 울음소리 대신 流行歌, 뽕가리, 북 등이 울리고 野草나 樹木의 自然姿態의 매력대신 醉客의 亂無가 盛行하고, 결국 아름다운 自然은 여지없이 짓밟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이렇게 하여 破壞된 自然의 復原은 人力으로 도저히 어려우므로 우리는 生活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自然이란 하늘이 주신 至寶를 지키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한 포기의 꽃이나 한 마리의 새일지라도 무작정인 殺生은 삼가는 그런 마음씨가 아쉽다. 特히 領土가 좁고 人口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國民全體가 自然保護의 정신에 투철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自然은 얼마안가서 荒廢化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아름다운 錦繡江山을 되찾을 것인가?

(高大 理工大 教授)

<自然紹介>

雪 岳 山

李 敏 載

우리나라는 國土의 약 7割이 山地로되어 있는 만큼 大小 수 많은 山이 到處에 있어 이름 높은 큰 山만 하더라도 수십을 넘는 터이오, 또 그것들은 제각기 그 나름의 特長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南韓에서는 山勢의 壯嚴함과 幽玄한 溪谷의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보아 雪岳山을 제일의 名山으로 指目하는것을 주저치않을 사람은 비단 筆者만이 아닐 것이다.

雪岳山은 江原道の 麟蹄, 襄陽 兩郡과 東草市에 걸쳐 位置하고 있는데, 地勢로 본다면 半島의 脊梁을 이루는 太白山脈의 北쪽에 우뚝 솟아 東으로는 一望無際의 동해 바다를 굽어보며 北으로는 雪岳山脈 넘어로 金剛山과 마주보고 있는가하면 南으로는 半島의 南端까지 이어가는 산줄기에 닿아있다 標高 1.807m에 달하는 大靑峯을 主峯으로 하고 그 둘레에 一萬餘 奇峯들이 평풍처럼 둘러서 있으며 그 사이 사이에 十二仙女臺, 永矢, 水簾, 鳳頂, 伽倻, 五色, 千佛 등의 깊은 골짜기에는 面面히 奇岩과 怪石으로 빼어난 山勢를 더욱 雄大하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골마다 굽이치는 清流의 玉音이요, 큰 沼와 여울(灘)과 긴 瀑布가 處處에 있어, 처음 와보는 이는 말할 것도 없고 몇번씩 찾아드는 사람도 그때마다 새로운 感銘을 금할 수 없이 참으로 萬人의 입에 膾炙됨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일찌기 六堂 崔南善先生도 韓國의 山水를 이야기 하는 가운데 雪岳山을 金剛山과 比較하여 「金剛山은 너무나 顯露하여 마치 路傍에서 슬파는 색시같이 아무나 손을 잡는 한탄이 있음에 비하여, 雪岳山은 絶世의 美人이 그윽한 골에 있으며 고운 양자는 물속의 고기를 놀래고 맑은 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멈추게하는 뜻이 있어서 참으로 山水風景의 지극한 趣味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金剛보다는 雪岳에서 求求하는 바를 비로서 滿足케 할 것」(「朝鮮의 山水」所載)이라고 격찬했던 것이다.

雪岳山은 이와 같은 地形的인 美觀과 아울러 이곳에 棲息하고 있는 豊富한 動植物은 自然生物分布에도 특징을 이룬다. 地域的으로 北方種과 南方種의 限界地帶를

형성하는 이 山 전체를 뒤덮고 있는 原始林은 신갈나무, 서나무, 단풍나무등의 夏綠潤葉樹와 소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주목 등의 常綠針葉樹의 混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植物의 垂直分布相에 변화가 현저하여 頂上으로 가면서 발달한 바람꽃, 꽃쥐손이, 등대시호, 마치 양탄자 처럼 깔려 있는 눈잣나무등의 高山植物群落이 分布하여 아름다운 風致를 이룰뿐만 아니라, 과거 地質時代의 氣候 變遷에 따르는 植物의 移動을 推定할 수 있는 좋은 資料가 된다. 또한 여러가지 종류의 動物中에서 특히 北部地方種인 반달곰, 가막따다구리, 잣가마귀, 표범, 산양, 솔새등과 滅種 危機에 있는 크낙새, 산양, 사향노루 등의 存在는 이 山의 天然保護地區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혀 주고 있다. 低項嶺, 馬等嶺, 大靑峯, 寒溪嶺으로 이어지는 線을 分水嶺으로 이 山은 內·外雪岳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兩面으로 흐르는 河川에 棲息하는 동물들이 內雪岳에서는 주로 南方分子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해 外雪岳에서는 北方分子로 구성되어있음은 이 山의 自然이 갖는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絶勝의 名山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한낱 景觀의 玩賞으로써만 自然에 대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姿勢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近來 自然을 찾아드는 熱이 점점 高潮되고 있고 이에 따라 山으로 가는 人口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반나절이면 서울에서 雪岳山의 初入까지 도착할 수 있을만큼 交通手段이 발달됨으로써 自然의 참모습이 破損되고 俗惡化되는 경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自然과 人間사이에 倫理의 문제가 대두되는 所以가 있다. 自然을 그 원래의 모습으로 保存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國際的인 運動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崇高한 目的은 自然으로 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汎國家的인 努力이 集約되었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大 文理大 敎授)

회 원 모 집

본회에서는 正會員, 團體會員, 贊助會員의 가입 신청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실곳 : 서울特別市鍾路區東崇洞31 서울大學校文理科 大學動物學科內 韓國自然保存委員會

<資料>

사라져가는 韓國의 鳥獸類와 그의

時急한 保護問題 (1)

— 絶種危機에 놓여있는 種類 —

元炳 許

지금까지 全世界에서 알려져 있는 野生鳥獸類의 종류는 鳥類(새) 約 8,600種, 獸類(짐승) 約 3,200種이며, 南韓에서는 새 360여種과 짐승 60여種이 記錄되어 있다.

한편 世界的으로 有名한 도도(Dodo)새가 17世紀에 地球上에서 자취를 감춘 以來 現在까지 280여年 동안에 絶種된 종류는 42種, 44亞種, 아마도 絶種되었다고 보는 種類는 11種, 8亞種이며 地域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絶種된 鳥類 (James C. Greenway Jr. 1967에서)

地 域	絶種된 種類		絶種 推想種類	
	種	亞 種	種	亞 種
북아트랜트 諸島	1	—	—	—
北아트랜트 諸島	2	3	—	—
과다루트 諸島	2	3	—	—
西인도 諸島	2	8	—	—
남아트랜트 諸島	—	1	2	—
하와이 諸島	9	7	4	6
中央 및 西太平洋 諸島	12	12	2	1
호뉴지랜드 諸島	—	2	—	—
뉴지랜드 諸島	1	3	1	—
亞細亞 諸島	5	2	—	—
亞細亞 諸島	2	1	1	—
亞細亞 諸島	1	—	—	—
印度 諸島	5	2	1	1
計	42	44	11	8

哺乳類는 過去 2,000年 동안에 106種(및 亞種)이 地球

上에서 살아져 갔으며 앞으로도 絶種危機에 놓여있는 종류가 600種以上이나 된다. 이 중에서 約 67%는 지난 한 世紀 동안에, 그리고 38%는 지난 半世紀 동안에 絶種되었으며 그의 速度는 不斷히 빨라져 가고있는 형편이다.

絶種된 종류의 內譯을 地域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絶種된 哺乳類 (Francis Harper, 1945에서)

地 域	種類數(種 및 亞種包含)
호뉴지랜드 諸島	11
마레이列 亞細亞 諸島	3
亞細亞 諸島	3
유라프리카 諸島	6
아프리카 諸島	9
마다카스카르 諸島	1
北아트랜트 諸島	27
亞細亞 諸島	41
南아트랜트 諸島	1
취라프고 諸島	1
가라프고 諸島	2
태평양 諸島	1
計	106

이제 韓國에서 絶種된 종류와 絶種危機에 놓여있는 종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絶種된 種類; 원앙이사촌, 벌(호랑이) (白頭山地域에 限하여 生存함).

絶種危機에 있는 鳥類; 따오기, 황새, 크낙새, 두루미, 먹황새, 흑비둘기, 노란부리저어새, (및 저어새), 습새.

稀貴種; 재두루미, 곤이(및 흑곤이, 큰곤이), 너화, 독수리,

絶種危機에 있는 獸類; 산양, 사향노루, 늑대, 표범, (慶熙大 文理大 教授)

危險에 놓여 있는 韓國鳥獸類集團의 昨今の 變遷

種 類	種 類	1945年前(2次大戰前)			1965年後(韓國動亂後)		
		털 새	여 름 새	겨 울 새	털 새	여 름 새	겨 울 새
鳥 類	天 然 記 念 物			+++			+
	파랑새	+++			+		+
	크두루미	++		+++	+		+
	흑비둘기	++		+++	+		+
鳥 類	노부리저어새(저어새)			(+++)			+(+)
	습새			++++			
	재두루미			++++		++	++
	곤이(흑곤이, 큰곤이)			++++			++
鳥 類	稀 貴 種			+++			+
	너화			++			+
	독수리			++			+
獸 類	天 然 記 念 物			+++			+
	산양	+++			+		+
	사향노루	++			+		+
獸 類	稀 貴 種			++			+
	표범			++			+

++++多, +++普通, ++稀, +絶種危機

<수필>

<詩>

길

日出峯

李崇寧

—金剛回想Ⅱ—

朴斗鎭

「장돌뱅이」라면 한 때 우리집에서 나를 가리키는 別名이었다. 山行이니, 方言調査니 하고, 번쩍하면 록·썩크를 메고 집을 나서 한 바탕 뛰어다니기 때문이려니 한다. 그러나 그 德으로 國內의 이름있는 곳이라면 거의 다 다닌 것이 아닐까 하는데, 그 中 내가 걸어 보고서 印象的이라고 느낀 길이란 그리 흔하지 않다. 요새 같은데, 남이 北岳山 위의 「스카이·웨이」가 좋다고 한다고 덩다라 호주머니를 털어 택시로 달려 보고, 떠들석 하는데, 그 式의 人工으로 꾸며진 길이라면 外國에는 예사가 아니라. 내가 즐기는 길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님은 勿論이다.

光陵 어귀에 아랍두리 나무가 치솟은 길도 좋기는 하다. 그러나 내 眼目으로는 그 길의 가장 큰 減點은 곁에 시내가 없다는 것이다. 이 光陵 길이 곁에 並行되는 溪谷이 있어 물소리가 요란하다면 그 길은 첫 손가락에 꼽힐 것인데, 나는 이런 條件 하나가 光陵어귀 길에 不足하다고 보는 터이다. 허기야 멋진 길이 적은 韓國의 風景에서 지나친 慾心이라고 탄탄다면, 다시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아무리 魯鈍한 머리라도 무엇인가 느껴지니 탈이기는 하다.

그러나 내가 가장 印象的이라고 느낀 길은, 俗離山에 올라가는 初入, 그것도 法住寺에서 福泉菴 밑까지의 3키로의 길이다. 나도 이 길은 봄·여름·가을·겨울 어느 季節에도 걸어 보았다. 이 길은 午後가 어울리며, 밤이면 더욱 좋은데, 아마도 이만치 여러 條件을 갖춘 길도 적을 것이다. 길은 소나무로 뒤덮였고 그 곁에는 이 길과 調和가 될 相當한 규모의 溪谷을 끼고 있다는 特徵을 높이 評價하고 싶다. 그리고 兩편은 부드러운 陵線으로 에워쌓여 그윽한 멋을 풍기고 있고 溪谷은 그리 露出되지 않고 雜木으로 가려졌으나 環境의 調和로 유별나게 어울려 보인다.

나는 年前 겨울 霧下 十餘度の 밤, 그것도 눈이 얼어 붙은 위로 열 나흘날 달빛이 아롱진 이 길을 걸은 일이 있다. 女學生 山岳部員을 데리고 간 때이지만, 너무도 印象的인 길이어서 지금도 가끔 이 멋진 길이 追憶으로 되살아 난다. 달빛이 소나무가지들 거쳐 언 눈 위에 쏟아 지듯 곳곳이 反射되고 있었다. 登山靴 바닥이 눈에 먹이지 않는 듯 빠작빠작 소리를 내며, 그 부드러운 觸感이 皮膚에 스며든다. 靜寂의 世界, 우리 外에 아무도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없었다.

이 길은 여름 午後에 걸어도 좋다. 소나무와 雜木으로 그늘이 짙고, 곁의 溪谷의 물소리도 가다가 생각나는 듯이 요란히 들린다. 걸다가 쉬려면 길가의 溪谷으로 내려

가을 山 山 안개
새벽 오름길
붉게 젖어 땅에 쌓여
落葉 밟히고,
咫尺에서 咫尺을
지벽 거리고,

아. 안개바람 훌훌훌
안개 걸히고
저 아래 저 아래 山 아래 구름
구름 속에
붉게 번져
해가 그물고,
보오양계 구름 저쪽
東海 안 보이고.

구름 바다 山 바다
치올려 부는 구름 바람
바람 맞받혀
주저 앉아 바위가 되어
웅웅 그리고,
白樺 처럼 서서 往生
하늘 우러르고,

가을 山 안개구름
홀로 내딛 길
치덕치덕 어깨 위에
진눈 내리고,
지출대며 山새 하나
안 날아 가고.

서도 땀은, 금시에 가시는 것이다.

봄과 가을에 營養失調의 濟州말이 끄는 洋鐵馬車를 타고 이 길을 달리는 客도 적지 않다. 그러나, 馬車가 이 그윽한 風趣를 얼마나 俗化시키고 있는지 이맛살이 찌푸려진다. 정녕 이길은 閑寂과 어울려야 멋이 짙어지는 것인데, 두꺼비표 술甁이나 차고 오는 俗客이 알 바 아니려니 한다.

이 길은 途中에서 한 두 차례 쉬면서 느끼고 思索하고 感想할 수 있는 者에게 더욱 그 값이 올바르게 評價될성 싶다. 내가 哲人도 아닌 俗物이지만 이 길만은 어딘가 理解할 수 있는 것만 같다. (서울大 文理大 教授)

<수 필>

自 然

鄭 文 基

原始人들은 自然 속에서 自然과 함께 自然的 物質으로써 生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自然의 힘에 대하여 一種의 恐怖感과 壓倒感을 느끼었다. 따라서 自然이 갖고 있는 힘을 不可思議의 힘, 神秘的인 힘으로 생각하고 믿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原始宗教가 생겨났다. 이는 自然力의 威壓에서 近視眼의 生命을 유지하려는 崇拜心과 服從心에서 생겨난 人間의 無知와 약한 마음의 가는 길이었다. 한편 現代 文明人들의 宗教는 生命을 後生에까지 永遠히 延長시키고 幸福한 生活을 계속하려는 生命의 遠視의 慾望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우리 地球上에서의 生命이 死後에 어떻게 어디에서 계속되는지, 이대로 消滅되는지는 아직 究明되지 못하였는지라 宗教人들은 그저 믿으라하고 傳道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宗教가 가르치고 있는바 死後 人間靈魂의 有無는 半半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일이다.

위에 말한 바는 人間生命의 未來에 關한 人間의 思考方法이다. 반대로 人間生命의 起源 즉 生命體가 地球上의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의 문제를 科學的으로 규명키 위하여 世界 各國 學者들이 古代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열중해 오더니 이른바 生氣論과 機械論이 나왔다. 生物進化論을 더듬어보면 生命은 海水(汽水를 包含) 중에서 出發되었다는 사실과 無機物이 有機物로 化하여 蛋白質과 비타민이 豊富히 들어있는 植物性푸랑크톤인 珪藻가 이 海水中에서 생겨남을 안다. 이 珪藻는 바다의 基本的 食糧이다. 이렇게하여 靜의에서 動的으로 內部活性核, 즉 生命의 오리진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說이겠는데, 이 生命起源의 發生과 方法은 아직도 末知의 문제로 남아있다. 여하간 生命은 自然環境 속에서 各種 物質과 環境條件의 調和로써 生物 各自의 生命과 成長을 계속하고 있다. 地球上에는 가장 깊은 바다가 11,034m(마리아나海溝)이고, 가장 높은 산이 8,848m(에베레스트峯)에 달한다. 이러한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사이에 生物이 生動하고 있고 天然資源의 寶庫가 땅속과, 海底大陸棚 地下에 매장되어있을뿐 아니라 海底와 山野의 形狀은 奇奇妙妙하여 美術的으로 神秘스러울 지경인데, 藝術家들이 상상으로 그려본다하여도 아마 無數한 世紀가 걸릴 것이다. 生物은 動的이라 時間이 흐를수록 상상할 수 없는 自然의 모습이 美術化되어가고 있다. 한편 바다의 珪藻는 陸地의 牧草와도 같다. 이 牧草를 먹이源으로 海藻類와 各種 動物의 生命이 성장하고 있다. 珪藻類는 그 繁殖이 빠르다. 이런 類가 多産하는 덕택으로 數百萬의 小動物 즉 端脚類가 每日 10萬톤의 珪藻類를 먹고, 其他 小動物

은 이 端脚類를 먹으며, 中魚는 小魚와 端脚類를, 大魚는 中小魚類와 端脚類를 먹고산다. 이렇게 海中生物은 弱肉強食하여 强者만이 살아남을 것 같이 보이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고 强者인 大魚나 弱者인 푸랑크톤의 生命과 成長은 彼此에 均衡이 잡혀 調和되어있다. 海中에는 珪藻類가 번식할 수 있는 營養鹽類와 光線의 導入이 가능하여 生物의 同化作用을 이룰 수 있는 넓은 大陸棚이 있는 가하면 兩極이나 深海底에는 寒流가 大河川과 같이 흐르고있고, 달의 引力으로 潮汐의 현상이 周期的으로 일어나고, 大氣의 寒暖風雨等의 變化로 生物번식과 地形의 美術化에 重大한 영향을 갖어오고 있다. 海水는 淡水化하여 飲料水와 工業用水化 시킬 수도 있고, 潮差로 發電도 가능하며, 海底는 原子戰爭時 피난처는 물론 避暑生活區域으로도 利用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현상은 相互調和가 이루어져 있는지라 人間들이 自然의 眞價를 무시하고 一時的, 部分的 物質慾에만 치중하여 天然資源을 파손하든가 또는 濫獲하여 利用하는 國民과 그調和를 깨트리지 않고 完全히 利用하는 國民이 있다. 이 두가지 國民中 前者는 近視眼의 自己野心만을 充足하며, 獨立精神이 박약하여 남의 統治를 받은 國民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고, 後者는 自主獨立性이 강하고 富強한 나라의 國民들 중서 볼 수 있다. 적은 範圍에서는 山의 樹林이나 바다의 水産資源을 마구 採伐하고 남획하는 國民은 自主獨立性이 약한 國家民族이다. 古來로 祖上의 遺物인 天然紀念物과 文化財等を 잘 보호하고 못하는 것도 위에 말한 바와 같은 要因에서 생기는 結果일 것이다. (前水産大學長)

<海外紹介>

外國의 自然保護(I)

—史的考察을 主로하여—

洪 淳 佑

人口의 激增 현상에 따라 또한 高度의 科學技術 및 生産工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自然은 파괴 내지 변모 해 가고 있다. 이것은 마치 工業化의 정도가 빠른 동시에 크면 클 수록 각 나라에서 다 같이 문제시되며 또 큰 政治的 課題로 등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錦繡江山을 자랑하며 곳곳의 山水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最近에 이르러서는 祖國의 近代化作業에 따라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必然的 結果로서 一部地域에서는 河川, 地下水를 위시하여 깨끗하였던 空氣까지를 汚染시키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生活圈마저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工業團地의 확장과 觀光 및 리크리에이션의 급격한 要求에 따라 各地의 아름다운 自然景觀은 그 本來의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自然의 保護란 이와 같이 변모 해 가는 大自然을 自然 그대로 保存하며, 또한 人工이 加해지기 以前의 自然에 대한 科學的 研究資料의 確保 또는 滅種되어가는 珍奇한 生物같은 것을 보호하는 등등 여러가지 目的을 가지고 이제는 全世界의인 활동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 이 保護策이 歐美各國에서 어떻게 실시되어 왔으며 어떠한 효과를 거두어 왔느냐 하는 것을 살펴 보기로 한다.

유럽에 있어서 自然保護에 관한 學問的活動 및 法的措置는 일찌기 工業化의 先驅役割을 한 독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880년에 出版된 루도르프(Rudorf)의 著書「現代生活과 自然과의 關係」에서 自然保護의 必要性이 처음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으며, 1898年 베데캄프(Wetecamp), 콘헨츠(Conventz) 등에 의하여 이 思想은 學問的으로 더 굳건한 理論主張으로 발전하였으며, 1902년에는 自然景觀對象地의 保存을 法的으로 조지함에 이르렀다. 1904년에는 智識人들의 모임인 독일 鄉土保護聯盟의 結成을 보았으며, 1919년에는 有名한 와이마루 憲法 第150條에 天然記念物 및 景觀의 保護·管理는 國家의 義務라고 規定짓기에 이르렀다.

그後 이 法은 오늘날의 産業發展에 따른 自然의 파괴 내지 生活圈의 危機마저 느껴지게하는 汚染除去 및 教育, 研究에 필요한 自然保護時代에 이르러 名實 共히 科學的인 保護法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유럽에 있어서 이밖에 영국에서 1907년에 처음으로 自然保護委員會란 民間團體의 結成을 보았으며, 스위스에서는 1909년에 各州가 聯合한 스위스 自然保護聯盟이 結成됐다. 이러한 民間團體는 자기 그나라의 지식인들이 自然愛護 및 保存을 力說하였으며, 나아가서는 天然記念物 또는 大自然의 景觀등을 國立公園으로 設定하여 法的

保護措置를 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國民 스스로가 自然을 愛護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신을 길러주는 데 밀거름의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의 自然美化를 이루게 하였다.

한편 北美大陸에서는 美國이 유럽보다 多少 앞서 1872년에 와이요민州, 아이다호州 및 몬타나州에 걸쳐있는 예에로스톤(Yellowstone)國立公園이 당시의 그란트大統領의 署名으로 國立公園法으로 定해 지는 것을 筆頭로 하여, 1890년에는 콜로라도 州의 요세미테(Yosemite)國立公園, 1915년에는 록키마운틴(Rockymountain)國立公園이 法으로 보호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도합 28個의 國立公園이 國民의 愛護精神 밑에 法的으로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最近에는 이 愛護精神은 汎國民運動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2年間의 짧은 期間이었으나 1963년에는 케네디 大統領의 強力하면서도 實踐力있는 國土美化運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뒤로는 現 존슨 大統領에 이르러 몇개 大學에 自然保存學科 또는 保存大學 내지 研究所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世界各國과도 제휴하여 자기 그나라의 自然을 保存하는데 선 도역할을 맡고 있는등 國際的 活動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같이 歐美 몇나라의 自然保護의 실패를 고찰하여 볼 때 언제나 共通的으로 느껴지는 것은 自然의 保護란 法을 앞세우는 政治行政의 方法만으로는 절대로 해결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自然科學的인 方法論이 필요한 同時에, 國民 個個人的의 마음 속에 自然 保護의 必要性을 直感한 나머지 自然을 사랑할 줄 아는 國民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必要 不可缺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서울大 文理大 教授)

社團法人 韓國自然保存委員會 定款(拔萃)

第1章 目的

第1條 本法人은 自然 및 資源의 保存과 保護에 관한 研究와 이에 關한 知識을 普及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本法人은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自然資源의 保存 및 管理에 關한 研究 2) 天然保護區域 및 天然記念物에 關한 諸般資料調査 및 管理에 關한 研究 3) 自然資源保護에 關한 刊行物 發刊 4) 其他 諸事業.

第2章 名稱과 住所

第3條 本法人은 社團法人 韓國自然保存委員會(The Korean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라 稱한다.

第4條 本法人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鍾路區東崇洞31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內에 둔다.

第3章 會員

第5條 本法人의 會員은本會의 趣旨에 贊同하여委員會 所定의 入會願書를 提出하고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6條 本法人의 會員은 正會員, 團體會員, 贊助會員, 名譽會員으로 區分한다. 正會員은 自然資源保存 研究에 從事하는 者로 하고 贊助會員은 本法人의 業務에 贊同하는 人士로 한다. 名譽

會員은 自然資源保存研究에 業績이 많은 人士로 한다.

第4章 任員

第10條 本法人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理事 若干名(理事長 1名包含)

監事 2名

第11條 理事의 任期는 4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5章 總會

第17條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任員選出에 關한 事項 2) 定款變更에 關한 事項 3) 豫算 및 決算의 承認 4) 事業計劃의 承認 5) 其他 重要事項

第6章 理事會

第22條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事業計劃 運營에 關한 事項 2) 業務執行에 關한 事項 3) 豫算決算書 作成에 關한 事項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5) 定款에 依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6) 其他 重要事項

第7章 資産 및 會計

第27條 本法人의 財政은 다음 收益金으로 充當한다. 1) 會員의 會費 2) 研究를 爲한 國家補助 外援補助 및 委託金

第8章 解散

第9章 附則

(現在 社團法人 認可申請 中에 있음)

韓國自然保存委員會 沿革

- 1963. 12. 24 : 韓國自然 및 自然資源保存委員會를 構成 會長趙福成博士 副會長 李德鳳 姜永善 兩博士를 選出함.
- 1965. 9. 11 : 韓國自然保存委員會라 改稱 理事長 姜永善博士 常任理事 洪淳佑 元炳晥 兩博士 理事 6名 監事 2名 選出함.
- 1965. 10. 12 : 當時 經濟科學審議會 委員인 崔奎南 李鍾珍 兩博士를 顧問으로 推戴함.
- 1965. 11. 3 : 美國의 Coolidge 博士 來韓 自然資源保存의 必要性 및 世界動向에 關한 講演會 開催.
- 1965. 12. 20, 1966. 6. 27 : 休戰線一帶의 自然資源에 대한 豫備踏查를 實施함.
- 1966. 3. 4 : 美國博物館協會 會長 Patterson 博士 來韓 科學館 設立에 關하여 討議함.
- 1966. 5. 5 : 비무장지대의 生物學的 基礎調查를 위하여 協議次 理事長 渡美.
- 1966. 7. 2 : Swiss에서 개최된 國際自然保存聯盟(IUCN) 總會에 姜永善 理事長과 元炳晥 理事 參席 IUCN에 團體會員으로 加入함.
- 1966. 5, 17~22 : 서울新聞社 後援으로 西部非武裝地帶인 판

- 측골에서 27명의 學者가 動植物의 生態에 關해 豫備調查를 함.
- 1966. 9. 10-16 : 비무장지대 生態系調查 5개년연구 계획을 爲하여 Smithsonian 研究所의 생물학자 6명이 來韓하여 調查地域을 踏查함
- 1966. 10. 15~1968. 6. 30 : 비무장지대의 全域에 걸친 生態系의 豫備調查를 Smithsonian 研究所의 後援으로 끝마침.
- 1967. 1. : 우리나라 國立公園法에 있어서 國際規格과 實情에 符合된 法으로 改正토록 政府에 建議하여 이를 貫徹함.
- 1967. 12. : 名稱을 韓國自然保存委員會로 改稱, 社團法人體로 할 것을 推進中이며 機構를 擴張하여 많은 一般會員이 加入하도록 努力中임.

任 員 名 單

- 理 事 長 姜永善
- 常任理事 洪淳佑 元炳晥
- 理 事 金昌煥 朴萬奎 李德鳳 李敏載 趙福成
崔基哲 文化財管理局長(當然職)
- 監 事 李德象 鄭英昊
- 幹 事 姜萬植 尹一炳

Contents

"A Word for Initial Edition" Dr. Kang, Yung Sun (Seoul National University)

Our association has been a member of IUCN since 1966, and carried out the ecological study near the DMZ in Korea in cooperation with Smithsonian Institution of the U.S. from 1966 to 1968.

This journal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spiritual cultivat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Thanks are due to the American Committee for International Wild Life Protection for their financial support.

<Editorial>

"Let's love Nature" Dr. Kim, Chang Whan (Korea University)

The status of nature-conservation in Korea was analyzed, evaluating the natural beauty of Mt. Halla in Chejudo together with hunting problem for recreation.

<Nature Introduction>

"Sorak Mountain" Dr. Lee, Min Jai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emphasized the beauty of Sorak mountain, and discouraged the characteristics of its alpine flora and the protection measure on the animals under a crisis of extermination.

<Overseas Introduction>

"Nature-protection in foreign countries" —Historical review— Dr. Hong, Soon 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atus of nature-conservation in Germany, England,

Switzerland and the U.S. was mentioned. Especially the movement of country-beautification begun in 1965 by president Kennedy has been drawing special interests.

<notes>

"Immediate protection problem on some disappearing Korean birds and beasts" —Species facing a crisis of extermination— Dr. Won, Pyong Oh (Kyung Hee University)

The names of the birds and beasts under the crisis of extermination are enumerated, and the decreasing status of their individuals since 1945 is tabulated.

<Poem>

"Mountain Peak" —Mt. Diamond— Park, Doo Jin (Woo Sok University)

<Essay>

"Mountain Path" Dr. Lee, Sung Ny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ure" Dr. Chyung, Moon Ki (Former dean, College of Fisheries, Pusan)

題字는 成均館大學校教授 閔泰植博士의 揮毫입니다.

- 發行人 姜永善
- 編輯人 金昌煥
- 編輯委員 金昌煥 金薰洙 鄭英昊 尹一炳(幹事)
- 連絡處 서울特別市 鍾路區 東崇洞 31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動物學科 內
韓國自然保存委員會